2경기 홈런 맞았지만… 문경찬은 다 계획이 있구나

KIA 두차례 홍백전…직구 회전·경기 감각 찾기 훈련 초점
"컨디션 100%로 올리는 중…생각대로 시즌 준비" 자신감

홈런은 맞았지만 '마무리' 문경찬의 2020시즌 준비는 이상무다.

문경찬은 임시 마무리로 시작해서 철벽 마무리로 2019시즌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올 시즌은 처음부터 마무리다.

문경찬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마무리 역할을 부여받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문경찬은 지난 20일 귀국 후 첫 홍백전에 나와 몸을 풀었다. 23일에도 마운드에 올라 시즌 구상을 이어갔다.

여전히 문경찬답게 씩씩하게 공은 던졌지만 두 경기에서 연달아 홈런을 허용했다. 지난 시즌 55이닝을 던지면서 단 두 개의 피홈런 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문경찬이었기에 의외의 결과였다.

하지만 문경찬은 "생각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문경찬은 "개막이 늦춰져서 천천히 하고 있다. 아직 컨디션이 100%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 감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결과에는 신경 안 쓰고 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한 대로 되어가는 것 같다"고 준비과정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보다는 경기마다 시험을 하면서 세밀함을 더해가고 있는 중이다.

문경찬은 "컨셉을 잡아서 경기하고 있다. 첫 번째 경기 때는 한국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경기 감을 잡으려고 했다. 두 번째는 직구만 던지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캠프를 치르면서 마무리 자리에 대한 부담감은 덜었다. 문경찬다운 직구로 올 시즌도 씩씩하게 풀어갈 생각이다.

문경찬은 "많이 믿어줘 감사하다"며 "처음 캠프 때는 저도 모르게 의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좋았던 게 직구 승부를 많이 했던 거라서 직구 회전이나 구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나흘간의 휴식을 통해 분위기 전환도 한 만큼 문경찬은 새 마음으로 '목표 없이' 다시 시즌을 설계해나갈 계획이다.

문경찬은 "다들 경기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며 "캠프도 길어지고 개막도 늦어지고 했는데 쉬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목표 없이 하려고 한다. 작년에도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목표 없이 하루하루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9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문경찬이 투구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충전 호랑이들, 내일부터 다시 엔트리 경쟁

KIA 타이거즈가 2020시즌을 위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휴가를 끝낸 KIA 선수단이 29일 챔피언스필드에 다시 모였다. KIA는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보냈다.

앞서 지난 24일 미열 증세를 보이는 선수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선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중단했었다. 25일 해당 선수의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린 KIA는 아예 훈련을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이날 예정됐던 야간 훈련을 취소한 KIA는 28일까지 선수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프링캠프 일정 연장과 이어진 연습경기에 따른 피로감을 털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 출발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나흘간 푹 쉰 선수들은 오후 3시 훈련에 맞춰 밝은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가볍게 몸을 푼 선수들은 '기본'에 집중한 훈련에 공을 들였다.

내야에서는 캠프에서 진행됐던 '앉아서 공받기' 포구 훈련도 전개되는 등 경기장 분위기는 스프링캠프를 연상시켰다.

윌리엄스 감독과 위드마이어 수석코치가 직접 펑고를 치며 선수들을 독려하는 등 KIA는 평소 강조했던 수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훈련 마지막 시간에는 '주루 강의'가 진행됐다.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위드마이어 수석코치와 함께 '득점력을 높이기 위한' 주루를 강조했다.

넉넉한 휴식의 시간을 보낸 선수들은 30일에는 시간을 앞당겨 오후 1시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31일부터 격일로 홍백전 일정을 소화하면서 잠시 멈췄던 엔트리 경쟁을 재개한다.

31일 4번째 홍백전을 치르는 KIA는 4월 2일에도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을 소화한다. 4월 4일 휴무일을 보내는 KIA는 다음 날인 5일에도 홍백전을 갖고 전력을 점검한다.

한편 예상치 못한 스케줄 변동이 있었지만 KIA는 앞서 예고한 대로 KIA 공식 유튜브 채널인 'KIA타이거즈 TV'를 통해 홍백전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 골프대회 재개 언제가 좋을까

골프다이제스트지 "PGA 7월말·마스터스 11월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골프 시즌이 중단된 가운데서도 각 메이저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들은 재개 시점을 놓고 분주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열리는 남자골프 4대 메이저 대회 중 4월 개막 예정이던 마스터스 토너먼트와 5월 개막 예정이던 PGA 챔피언십은 이미 연기를 결정했다.

남은 2개 메이저 대회인 6월 US오픈과 7월 브리티시오픈은 아직 공식 일정 변경 발표가 없었지만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유러피언 투어가 정규 시즌을 중단한 상태에서 메이저 대회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오는 7월 개막 예정이던 2020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골프 대회 관계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골프 전문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이같은 일정 변경과 대회 관계자들의 말을 근거로 4대 메이저 대회 개막일을 예측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여름 전에 진정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PGA 챔피언십은 7월 말 또는 8월 초에 개막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이 시기는 도쿄 올림픽 골프 남자부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었다.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11월 개막설이 떠오르고 있다. 마스터스는 10월 개막설이 먼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11월 개막이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은 원래 마스터스 대회를 마친 뒤 5월에 폐장, 10월에 개장한다.

올해도 10월에 문을 연다면 대회 준비를 위해 한 달 정도가 필요하며, 11월은 돼야 대회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잔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브리티시오픈은 7월에서 9월로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유럽과 미국의 골프대항전 라이더컵의 일정과 충돌한다.

하지만 이벤트 성격의 라이더컵보다는 메이저 대회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대회 관계자들이 공감한다면 브리티시오픈을 라이더컵이 예정됐던 9월 25일로 옮길 수 있다.

6월 18일 개막 예정인 US오픈은 일정이 변경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골프협회(USGA)는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 784명 K리그 누빈다

프로축구연맹 선수 등록 마감…리그1 443명·외국인 69명

784명의 선수가 2020시즌 K리그 무대에 도전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26일 정기 선수 등록을 마감한 결과 K리그1은 443명, K리그2는 341명 등 총 784명이 선수 등록했다. 국내 선수는 715명, 외국인 선수는 69명이다.

기존 선수에 대한 등록 마감 이후 광주FC가 새로 영입합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이청용(울산), 성남FC에 새 둥지를 튼 김영광, '6년 차 K리그' 에델(제주) 등 이적·임대·신인 선수가 추가로 등록됐다.

K리그1 12개 구단의 구단별 평균 인원은 36.9명으로 수원 삼성이 가장 많은 43명이다.

군팀인 상주 상무(29명)을 제외하고 전북현대와 부산아이파크가 각각 33명으로 선수 인원이 가장 적었다.

K리그2에서는 경남FC가 39명으로 최대 인원을 기록했고, 부천FC가 최소 인원인 29명을 등록했다. K리그2 구단별 평균 인원은 34.1명이다.

상주를 포함한 전 구단이 22세 이하 국내 선수 의무 출전 규정 적용을 받는 올 시즌, U22 선수는 K리그1 133명, K리그2 88명 등 총 221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5명 늘어난 수치다. 대구는 42명의 선수 중 가장 많은 19명을 22세 이하 선수로 채웠다.

지난 시즌 준프로 계약을 통해 '고등학생 K리거'로 이름을 알린 오현규(매탄고·수원), 권혁규(개성고·부산) 등 프로로 직행한 선수들을 포함한 유스 출신은 252명이다.

소속 구단 유스 출신이 가장 많은 구단은 수원이다. 수원은 43명 중 18명이 수원 유스시스템을 거쳤다.

한편 정기등록을 마감한 연맹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추가 선수등록 기간을 갖는다. 추가등록 대상자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이다. /연합뉴스

K리그 신·구 용병 'ACL 베스트 골' 경쟁

데니스·에드가, 아시아 챔스리그 '베스트 솔로 골' 후보 올라

프로축구 K리그의 '전설' 데니스와 대구FC의 에드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역대 최고의 '솔로 골'을 넣은 선수 후보로 꼽혔다.

AFC는 29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솔로 골' 투표를 진행 중이다. 동료의 어시스트 없이 득점자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넣은 5개의 골 중 최고를 선정하는 투표다.

1990~2000년대 K리그를 풍미한 데니스(이성남)가 성남 일화(현 성남FC) 소속이던 2004년 대회 결승 1차전에서 알 이티하드(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넣은 골이 당당히 후보로 올랐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은 데니스는 3명의 선수를 제치며 단독 돌파한 뒤 송곳 같은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다.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성남은 데니스의 골을 앞세워 3-1로 이겼지만, 안방에서 치러진 2차전에서 거짓말 같은 0-5 대패를 당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에드가가 대구에 오기 전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 유니폼을 입고 넣은 골도 후보로 올랐다. 2018년 대회 16강 1차전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넣은 골이다.

전북 진영에서 공을 잡은 에드가는 하프라인 부근부터 점차 속도를 높였고, 전북 수비수를 몸싸움으로 이겨내며 페널티지역 안으로 돌파해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달려든 전북 미드필더 신형민까지 유려한 몸놀림으로 제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를 갈라 3-1을 만들었다. /연합뉴스